

현 불 뉴 스

통도사 화엄산림 입재

통도사(주지 원파)는 11월 경내 설법전에서 96년 화엄산림입재식을 봉행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이번 법회에는 원효종정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석했다.

삼학사 관람료 합의

통도 삼학사(주지 원행)는 지난 11월 29일 동해시청에서 관계자 실무회의를 갖고 합동정수액의 7%를 문화재관람료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승광사 정혜사 건립

승보종찰 승광사 법성로가 해제되고 강원도 중심건물 정혜사가 건립돼 초발심자가 수행에 몰두할 수 있는 도량으로 거듭난다.

내년 1월 준공될 정혜사는 10칸 75평으로 건물양식은 주시보 팔각절차마형식으로 선원인 수선사와 똑같이 마추하게 됐다.

22일 복지종사자대회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월주)이 주최하고 한국불교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각현)가 주관하는 불교사회복지대회가 오는 22일 해라타워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파라미타 부산지부 결성

파라미타청년학회 부산지부(회장 성우)는 14일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결성대회를 개최했다.

범어사 종도세 납부

범어사(주지 성우)는 지난 10일 비종교시설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부대상 가산금 8억원을 납부했다. 이로써 4년여에 걸친 금정구청과의 마찰이 완전히 해소됐다.

성보관리지침 시달

조계종 문화사회부(부장 성관)는 동절기를 맞아 '사찰에서의 성보관리 지침'을 마련, 전국사찰에 시달했다. 문화사회부는 11월 조계종보를 통해 △주요문화재 정비사업 현황, 기록보존 △도난 우려성보 특별(위탁)관리 △경동수상사 인적, 차량번호 기록 △낡은전선교체 및 난방기사용 주의 △훼손농에 의한 화재, 불상 훼손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사이비종교 심각한 사회病... "대책을 찾자"

가치관 혼란·소외감 '원인'

아가동산 집단타살사건과 영생교 신도 암매장사태 발굴을 계기로 사이비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성종교의 반성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종서교수(서울대 종교학과)는 "개념을 혼란시키는 기성종교의 반성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렇지 않은 종교행위를 사이비종교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규정하고, 기성의 정통종교도 세속적으로 타락하면 사이비종교로 전락할 수 있다며 기성종교의 반성을 촉구했다.

정부 신고센터운영등 척결기능 미약 기성종교에도 책임... 신행혁신돼야

같은 경우가 더 일어날 수 있다 고 경고하고 이미 집단에 대한 투서가 많았음에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당국의 단일한 처사를 비판했다. 특히 문제부 사이비종교신고센터가 제약할 못하고 있다며 종교전문가들로

구성해 실사를 비롯한 현실적인 대책수립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순수한 신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교가 앞장서서

WFB대회 내년 9월 서울·경주서

집행이사회 결정... 한국본부 등 3곳서 공동유치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제20차 대회가 내년 9월 서울과 경주에서 열린다. WFB 집행이사회는 지난 11월 29일 네덜란드 카트만두 마운트호틀 국제회의장에서 회의를 열어 한국의 3개 지부인 한국본부(회장 박동기) 연합회지부(회장 김관태) 원불교지부(회장 전팔근)가 공동 유치하고,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운)와 대각사 조실 도문스님이 후원자가 되어 WFB 제20차 및 WFBY 제11차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기로 최종 결정했다.

세계는 지난 9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 구속기소된 진관스님의 석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진관스님 석방 촉구 동국대 총동문회등 3곳

동국대학교 승가단체인 총동문회(회장 월탄) 석림동문회(회장 혜중) 동림동문회(회장

경주시민 "방내리역사 지지"

경실련 여론조사

대다수 경주시민들도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로 건철을 방내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성태스님)은 지난 11월 동국대 지역경제연구소(소장 임배근)에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의 입지에 관한 시민 여론조사를 의뢰한 결과, 59.5%가 방내리를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꼽았으며, 35.7%는 내남면 덕천리, 4.8%는 '기타'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건철을 방내리를 불교계와 고고학회를 비롯한 문화계에서 △문화재발굴지역인 '원경주'를 복원하고 △경주시민의 개발욕구 해소 △경주남산 보호를 위해 역사후보지로 지지해 온 지역이다.

동국대 지역경제연구소는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4백17명을 무작위추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경주경실련은 이같은 여론조사를 토대로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건철을 방내리에 경주역사가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경실련은 또 △문화유적으로 재산권 피해를 당해온 주민을 역사권으로 이주시키고 도심을 '원경주'로 복원하기 위한 '고도보존특별법' 제정과 △신경주 건설을 경주시 주도 추진하되, 개발이익은 주민들의 이점과 피해에 도시환경 개선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일산캠퍼스 계획 '순조'

땅 2만5천평 매입... 내년 기공될듯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9월 일산 제일은행부지 2만5천평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0일 송석구총장 취임 2주년 및 동국90주년 기념행사 성료와 관련 교계기자간담회에서 밝혀졌다. 이로써 동국대는 내년부터 일산 캠퍼스기공에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서울본교의 공과대 이과대와 경주의 의과대를 이전하고 한·양방 1천병상

규모의 불교종합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동국대는 개교 90주년을 맞아 웅비의 도약대를 마련한 만큼 개교 1백주년 되는 2년6개월간 10년간 지속적으로 교수발전제 정착과 학부제시행 일산캠퍼스 건립 불교종합병원 건립 학교발전기금 3천억원만 원 등의 사업으로 세계 1백대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끄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총무원은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현상이므로 의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사회부장 성관스님은 "사이비종교에 대한 대책수립을 마련, 곧 발표할 계획"이라며 "부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신행혁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사이비종교는 △시한부 말세론 △지상천국사상 △교주사신의 신격화 △신비체험 강조 △삼교의 혼합주의 △형전의 아전인수적 해석 등의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사이비종교는 지극히 폐쇄적인 운영형태를 띠고 있어 실체 파악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백여개의 사이비종교집단이 있으며, 신도만도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성운 기자)

종교인이 결혼관, 혼전 성관계 등에 대해 비종교인보다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등 종교가 성도덕의식에 저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종교사회학연구소(지도교수 김중서)가 최근 서울대 9개 단과대생 1백3명(신자 46.6% 비신자 53.4%)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종교와 성도덕에 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꼭 하겠다'는 항목에 비종교인은 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종교인 성도덕 보수성향"

Table with 2 columns: '서울대 9개 단과대생 설문조사' and '조사됐다'. Rows include statistics on marriage, family, and religious attitudes.

은평구청 불심회 12일 창립

사찰순례·참선정진 통해 불심·친목도모

서울 은평구청 공무원 불자모임인 '불심회(회장 황용학)'는 지난 12일 은평구청 문화회관에서 회원 90명과 가족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가졌다.

은평구청 불심회 12일 창립

불심회는 이날 회장에 은평구청 재무국장 황용학(59)씨를 선임하고 고문은 은평구 사안연합회 성문스님과 이배영 구청장을 추대했으며 수석사 주지 주유, 삼보사 주지 지원, 진관사 주지 진관스님을 지도부사로 위촉했다.

불심회는 매달 정기법회와 사찰순례, 참선정진 등을 통해 직원 상호간의 불심과 친목을 돈독히 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천주교 신도모임이 활발한 활동을 벌여 은평구청에는 약 150명의 불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90명이 불심회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

ICOMOS 실바총장 한국방문 1월로 연기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해인총림대책위(위원장 보광)와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최열)은 ICOMOS(세계기념유적위원회) 실바 사무총장의 한국방문을 재추진키로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실바 사무총장의 방문시기는 빠르면 내년 1월말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바사무총장은 팔만대장경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해 해인골프장 예정지 답사, 특별강연 및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으로 나경유자인 싱가포르에서 실바를 출입국관리국의 탑승거부로 방한이 취소됐다.

마음 내가 한줄 몰라야

익을 하면서도 하는죽 모르고 보면서도 본죽 모르고, 밥을 먹고 다니면서도 먹는 죽 몰라야 한다. 맛까지 법을 손으로 주무르고 익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줄 몰라야 하니 그것이 흑연히 깨닫는 지경이다. (한겨레요언)

합천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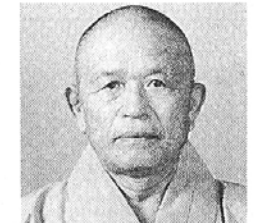
선학원 중앙선원은 11일 한국불교계정화사 간행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정화사 간행에 들어갔다(좌로부터 성돈·법행·성해스님).

선학원 '불교정화사간행위' 발족

(재)선학원 중앙선원이 근대 조계종사 간행에 나섰다. 중앙선원장 성해스님은 지난 11일 서울 중앙선원에서 한국 불교계정화사 간행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일제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계종의 역사를 정리해 책으로 출판한다고 밝혔다. 성해스님은 "오랜동안 조계종 정화관련 자료를 수집했다"며 "앞으로 3년간 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정화사를 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집필은 최유심(불교춘추)주장이 맡는다.

태고종 전총무원장 서봉스님 열반

태고종 제14·16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서봉스님(신촌 봉원사 조실)이 지난 13일 오전 6시30분 봉원사 문수각에서 입적했다. 세수 81세 법랍 68세. 태고종은 서봉스님의 장례를 종단장으로 지난 15일 오전 11시 신촌 봉원사에서 거행했다. 서봉스님은 1928년 경기도 용주사에서 운호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여 1942년 해화전문학교(동국대 전신) 불교학과 졸업 1962년 불교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사회부장 역임, 1964년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겸 경 개신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1993년 태고종 제16대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신촌 봉원사에 주석해 왔다. 신령나는 한 빛은 본래 그림자 없고 굵은 굵은 문이 없으나 만일 생사의 뜻을 묻는다면 모래밭의 학의 세 소리니라.

Advertisement for 'Buddha's Power'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Includes details about a 'Buddha's Power' (佛탑다라니) and a 'Buddha's Power' (佛탑다라니) book.

Advertisement for 'Child Education for Self-Donation'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Includes details about a 'Child Education for Self-Donation'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and a 'Child Education for Self-Donation'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book.